

【자극적인 현대 아트의 세계】

안녕하세요. 오카야마시장 오모리입니다.

드디어 10월 9일에 오카야마성과 미술관 등이 집적되어있는 역사·문화존을 무대로 세계 16개국 31조의 현대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한자리에 모여, 거리를 수놓은 「오카야마 예술 교류 2016」이 개막되었습니다.

이 이벤트는 걸어서 돌수있는 범위에 작품을 모아둔 것이 특징으로, 저도 몇몇 작품을 둘러 보았습니다만, 매우 자극적으로, 비일상의 공기가 일대를 감싸 안은 것 같았습니다.

작품 일부를 소개하면,

- 여성의 나체상의 머리에, 인간의 뇌가 비대화 된것처럼 보이는 벌집을 씌운 작품
- 운석이 지면에 박힌 듯한 스테인레스의 거대 조각
- 여성의 거대 초상화를 늘어놓은 영상 작품
- 빌딩의 골짜기에 나타난 흰색을 기조로 하는 퍼터 골프 등 51개의 다양한 작품이 실내외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이나 오카야마를 방문하신 여러분이 누구나 현대 아트의 세계를 쉽게 즐길 수 있는 이벤트로, 관람자들이 어떤 반응을 하실지 기대됩니다.

또한, 몇몇 작품은 작가의 의도를 아는 것도 좋다고 생각되어, 종합 디렉터인 나스 타로 씨에게 해설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의뢰했습니다.

요금은 일반 1,800엔, 현민(예매) 1,000엔 등 합리적인 가격으로, 현지 기자도 「이 가격에 이 정도의 작품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저렴하네요.」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특히, 중학생 이하는 무료로, 되도록 많은 학생들이 자극적인 현대 아트의 세계를 접하고, 「이건 과연 뭘까」라는 놀라움을 느꼈으면 합니다.

평소엔 의식해서 보지 않았던 것이, 예술작품으로 거듭남으로써 많은 분들의 주목을 받게 됩니다. 다시 한 번 현대 아트의 세계란 이런 것이 아닐까 하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 돌연히 나타난 비일상적인 세계를 충분히 만끽하셨으면 합니다.

※기간 : 10월 9일 ~ 11월 27일

※이벤트의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http://www.okayamaartsummit.jp/>